백암 백중문화제 학술세미나 및 주민 공청회

□ 일　　시 : 2011년 9월 17일(토) 14:00-17:30
□ 장　　소 : 백암면사무소 강당
□ 주　　최 : 용인문화원 · 백암지역문화제발굴보전회
□ 후　　원 : 경기문화재단, 용인시

용 인 문 화 원

백암 백중문화제 학술세미나 및 주민 공청회

□ 일　　시 : 2011년 9월 17일(토) 14:00-17:30
□ 장　　소 : 백암면사무소 강당
□ 주　　최 : 용인문화원 · 백암지역문화제발굴보전회
□ 후　　원 : 경기문화재단, 용인시

용 인 문 화 원

행 사 일 정

사 회: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1부 개 회 식

■ 개회사(김장호 용인문화원장)

■ 환영사(유정배 백암지역문화제발굴보전회장)

■ 축 사(김학규 용인시장, 이상철 용인시의회 의장)

2부 학술대회

■ 기조강연 '지역의 민속문화 콘텐츠 개발' (15분)
(임영상,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발제1 '백중놀이 우란분재 호미씻이, 그리고 밀양 백중놀이' (15분)
(장두식,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교수)

■ 발제2 '살아있는 유산, 지역의 역사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15분)
(이선철, 숙명여대 겸임교수,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

3부 토론회

■ 지정토론(각 5분)

1)이선우(용인시의회 의원)
2)우상표(용인시민신문 대표)
3)박숙현(용인신문, 용인문화원 이사)
4)김주홍(백암면리장협의회장)
5)박세환(백암면 체육회장)
6)김종억(백암면장)

■ 종합토론(30분)

여 백

행 사 개 요

백중은 농부들이 봄부터 여름 까지 논밭 일을 하다가 음력 7월 15일에 이르러 바쁜 일손을 내려놓고 비로소 휴식을 취하는 날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각종 놀이를 즐기며 하루를 보내던 농민들의 여름철 명절임. 백암은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백중날이면 온 주민이 백암장에 모여 농악놀이, 씨름대회 등 고유의 민속놀이를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고 전해 옴. 지역에 면면히 이어오던 백중놀이를 오늘에 되살려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지역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를 지역문화 콘텐츠로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본 행사를 개최함.

1. 사업목적

□ 농경사회에서 행해져 오던 백중놀이의 민속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킴.

□ 백암 백중행사에서 어떠한 민속놀이가 연행되었는지 고찰하여 백중문화제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이를 계기로 사라져 가는 민속문화를 발굴하여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함.

□ 백중문화제를 어떤 목적과 컨셉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용인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함.

□ 주민들에게 백중의 의미와 백중문화제의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백암 백중문화제 학술세미나 및 주민 공청회
□ 일　　시 : 2011년 9월 17일(토) 14:00-17:30
□ 장　　소 : 백암면사무소 강당
□ 내　　용 : 백중과 백중놀이의 의미, 백중문화제 운영 방안
□ 운영주체 : 용인문화원 · 백암지역문화제발굴보전회
□ 후　　원 : 경기문화재단, 용인시

3. 현　황

□ 백암의 백중제는 조선총독부가 1936년 전국의 민속놀이를 조사하여 『조선의 향토오락』이란 책을 펴내고 풍물굿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민속놀이를 금지시키면

서 사라졌던 것을 광복 후인 1950년대에 지역 주민들이 다시 부활하였다가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사라진 백암 지역의 민속 축제임.

□ 백암 백중제를 통해 발전한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씨름임. 백중놀이가 열리는 백암장에는 각 지역의 머슴들이 모여 씨름대회를 열었는데 머슴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점차 일반인으로 바뀌게 됨.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송아지를 부상으로 받았음.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백암 씨름이 용인 전역으로 확산되고 현재는 용인을 대표하는 민속씨름으로 발전하여 각 단체마다 전국대회를 수없이 제패하는 등 우리나라 최강의 전력을 자랑함. (백암초, 양지초, 용인초, 왕산초, 백암중, 용인고, 용인백옥씨름단 등)

□ 또한 백암 백중제를 통해 매년 농악경연대회가 열리면서 마을 단위의 농악단이 참여하여 자웅을 겨루던 것이 현재 백암농악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 백암농악은 독특한 판제와 양식으로 용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웃다리 풍물로 전승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안성농악이나 평택농악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으나 백암농악은 세인의 무관심으로 아직 지방문화재로도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5. 기대효과

□ 농경사회의 중요한 민속 행사인 백중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현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함은 물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백암 백중제의 핵심적인 놀이이면서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았던 민속씨름대회를 적극 활성화하고 확대하여 향후 전국적인 규모의 백중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백암을 민속씨름의 중심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용인에 전승되고 있는 유일한 웃다리 풍물인 백암농악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인식시켜 지방문화재로 등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백암지역의 농경사회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김매기 소리나 벼베기, 타작소리 등의 농요를 채록하고 이를 시연함으로써 사라지고 있는 전통 농경문화를 전승 보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백중문화제는 농사일에 지친 지역민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를 위로하고 화합을 다지는 공동체 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행사인 만큼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지역의 민속문화와 콘텐츠 개발*

임 영 상(한국외대 교수)**

차 례

Ⅰ. 민속문화와 브랜드
Ⅱ. 중국 조선족 농촌사회와 민속문화
1.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강서촌의 유두절
2. 길림성 용정시 개산툰진 광소촌의 백중절(농부절)
Ⅲ. 용정 백중절(농부절)과 용인 백중문화제

Ⅰ. 민속문화와 브랜드

2011년 6월 22일, "중국 국무원이 아리랑과 가야금예술, 조선족회혼례, 판소리, 씨름을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발표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2009년 중국정부가 제1차(2006년)로 지정한 조선족농악무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듯이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전자와 다름 아닌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

중국과 한국은 이미 2005년 한국이 강릉단오제를, 2009년 중국이 조선족 농악무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때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국은 단오가 중국에서 연유한 것임을 주장하는 중국측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의 '단오제'는 중국의 '단오절'과 명백히 다른 것임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중국도 조선족 농악무의 등재에 대한 한국측의 이의에 대해 조선족 농악무가 '한국의

---

* 이 글은 용인문화원과 백암지역문화제발굴보존회가 주최하는 [백암 백중문화제 학술대회 및 공청회] 발표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아직 미완성이다. 2011년 9월21-28일 중국 용정시 광소촌과 영안시 강서촌 조사여행을 다녀온 후 보완될 예정임을 밝힌다.

** 한국외대 사학과/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한류열풍사랑 카페(http://cafe.daum.net/hanryulove)는 "우리의 DNA를 적출당한 고통으로 와신상담 중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농악무와 달리 조선족 고유의 특색[2]이 강하다'며 '유네스코 등재는 소멸 위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 측의 이해를 구했다.[3]

이미 중국 사회는 2005년 3월과 12월의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서>와 <문화유산보호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문>이 발표된 이후,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특별히 가무의 고장 연변을 비롯한 중국 조선족 사회는 열성적으로 단위 문화관(혹은 예술관)을 통해 조선족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정리하여 현•시급, 주급, 성급, 그리고 국가급 리스트로 등재해왔다. 이번에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준 '아리랑'타령은 2009년 6월에 길림성 성급 무형문화유산리스트 가운데 22건의 조선족무형문화유산 가운데 등재된 항목이었다.[4]

아리랑뿐만 아니다. 판소리와 민속씨름도 중국이 등재시킬 수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다. 2006년 흑룡강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발해진 영안시 강소촌 유두절과 2008년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용정시 개산툰진 광소촌 농부절(백중절)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이미 '민속문화가 곧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조선족의 민속문화는 한반도에서 연유한 것이다. 조국을 떠나 온갖 역경을 헤치면서 한민족의 민속문화를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 맞게 변형, 발전시켜온 중국 조선족 사회를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의 지역별 민속문화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브랜드화하려는 노력을 서두를 때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민속문화는 미래의 전망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하나는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생태문화 기능이요 또 하나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문화 브랜드 기능이다. 민속문화는 자연친화적 공생성과 재활용의 순환성을 지닌 까닭에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적 전통일 뿐만 아니라, 민중적 창조력에 의해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생산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으로 전승되는 까닭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고급문화나 매체에 의해 대량 보급되는 대중문화와 달리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해 주는 구실을 한다.[5] 주지하듯이, 안동의 하회마을(생활문화양상)이 안동의

---

2) 중국 조선족이 창출한 농악무는 상모의 짓을 흰 종이로부터 채색 금속종이로 교체했고 상모장기의 표현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장삼모짓의 길이를 12m로부터 32m로 늘리고 짓을 삼색으로 된 세 갈래로 증가하여 장상모의 기예적인 특징을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짓속에 '꽃부리'를 넣어 관중석을 향해 꽃보라가 흩날리는 활홀한 예술효과를 달성했다.(한룡길, 「전통적인 "농악놀이"를 모체로 한 중국조선족 "농악무"」, 『예술세계』, 2010.2, 36쪽.) 실제로 필자는 2011년 8월9일 연변주 왕청현 문화관을 방문, 2008년 1월 제2차 국가급 전승자[농악무(상모춤)]로 선정된 김명춘을 만나 중국 조선족의 상모춤의 변화양상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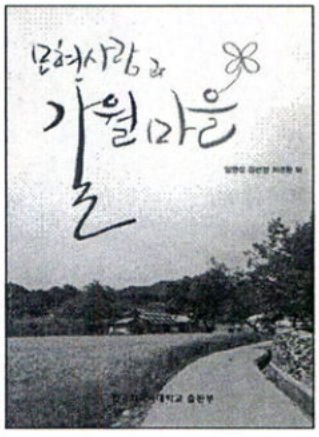
3) 류계옥, 「중국 조선족 비물질문화유산 보호현황 및 중국 조선족 농악무」, 『2009 동아시아 공동무형유산 보호 국제포럼』, 113-116쪽;

4) 허휘운, 「중국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과 그 실태 연구」, 『아세아의 무형문화유산 및 단오문화』(제11회 국제아세아민속학회 정기학술회의), 2010, 96쪽.

5) 임재해, 「한국민속의 국가브랜드화 방향과 과제」, 『소프트파워가 국가브랜드 경쟁력이다』(2011 국가브랜드 국제

브랜드를 넘어 한국문화의 아이콘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제고시키고 있다. 하회마을로 인해 안동은 로컬(local)이면서도 글로벌(global)적인 명성을 획득한 글로컬(Glocal) 도시가 된 것이다.

필자는 '글로컬' 용인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용인시민신문』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하고, 해외 한민족사회와 연계하고, 나아가 해외자매도시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었다.[6] 그런데 용인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중에 용인의 전통(속살)을 드러낼 수 있는 용인사람들의 삶이 슴베인 용인문화콘텐츠가 부족하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었다. 용인시가 운영하는 용인시티투어코스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자가 외대 문화콘텐츠 교•강사, 학생들과 함께 '모현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수집하고, '용인에 아직도 이런 마을이 남아있나?'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갈담리 갈월마을을 찾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모현사람과 갈월마을』 소책자는 출발일 뿐이다. 필자는 갈월마을이 스토리가 있는 용인마을투어 코스의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을 유지해온 마을사람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한국외대 문화콘텐츠 동아리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7]



[그림 1] 『모현사람과 갈월마을』 표지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촌문화콘텐츠는 모현면보다 오히려 백암면이 유리하다. 모현장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과거 용인장보다 더 규모가 컸던 백암장은 비록 옛 명성에 버금갈 수 없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 무엇보다도 백중절 민속문화를 다시 살려 지역의 화합과 문화적 정체성 확립,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속문화를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민의 자부심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부여해온 중국 조선족 사회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장에는 백중문화제의 기획과 진행, 궁극적으로는 '글로컬 용인'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용인학] 강의를 제창한 문화콘텐츠학도로서의 소견을 적고자 한다.

컨퍼런스), 2011, 99쪽.

6) 임영상, 「글로컬 용인과 대학의 협력」(2009-04-08), 『글로컬 용인과 글로벌 코리언 네트워크』(2009-09-02), 「글로컬 용인과 용인시의 해외자매도시」(2010-07-28)

7) 현재 갈월마을은 한국외대 인문대(문화콘텐츠 전공)와 협력 관계를 맺고 마을에서 사라진 옛 풍물을 회복하고 마을이야기 책자를 만들고자 협력하고 있다. 때마침 경기문화재단의 나도문화기획자 사업에 한국외대 문화콘텐츠 동아리가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10월 말경에는 갈월마을축제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갈월마을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를 제작하기도 했다.

Ⅱ. 중국 조선족 농촌사회와 민속문화

오늘날 중국 조선족사회는 20년 내외의 단기간에 농업사회→산업사회→정보화사회→녹색문화경제사회로의 발전단계를 압축적으로 경험해왔다. 특별히 농촌은 세대를 거쳐 개척해온 '문화영토'인 조선족 마을공동체의 해체, 학령아동의 부족으로 인한 민족학교의 폐쇄, 출산인구의 기하급수적 감소 등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어왔다.[9]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도시 인근의 조선족 집중촌의 건설, 곧 도시농촌화를 이룩한 요녕성 심양의 만융촌[10]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족 특색의 민속문화를 개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여 중국정부의 '새농촌건설 사업'의 모범으로 농촌관광까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후자의 성공사례는 음력 6월15일 유두절을 문화축제로 개발하여 흑룡강성을 넘어 전 중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강서촌**과 음력 7월15일 백중절을 농부절로 이름하고 '생태문화가 꽃피는 어곡전'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인시 개산툰진 광소촌이다. 우리는 민속(절기)문화를 활용한 중국 조선족사회의 사례를 통해, 백중문화제가 백암면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1.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강서촌의 유두절

동북3성 중의 하나인 흑룡강성(헤이룽장성)은 성도(省都)가 하얼빈으로 중국 북동쪽의 변방에 있으며, 흑룡강·우수리강을 사이로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다. 국경선의 길이는 3,045㎞이며, 그 가운데 수계(水界)가 약 2,800㎞에 이르러 국경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이미 개발된 국경출입구가 여러 곳 있다. 길림성 다음으로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흑룡강성의 전체 조선족 총인구는 388,458명으로 그 중에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경계를 이루는 목단강지역이 120,363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다.(하얼빈시는 119,883명) 조선족 인구 중 농촌인구는 241,220명인

[그림 2] 동북3성[흑룡강성](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9) 임영상, 「중국조선족과 문화산업: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발전전략」, 『백산학보』, 제86호, 2010, 319쪽.

10) 만융촌은

데, 농촌인구 또한 목단강지역이 62,500명으로 가장 그 수가 많다.[11]

흑룡강성 영안시는 목단강지역에 속한 소도시로 연변주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발해의 유적지인 발해진 강서조선족촌(江西朝鮮族村)은 영안시에서 남쪽으로 51km 떨어진 목단강 상류의 서안에 향수촌(響水村)과 나란히 있는 429세대 1,580명의 인구를 가진 영안시의 가장 큰 조선족마을이다. 흔히 흑룡강성에는 흔히 한반도 남부지방, 특히 경상도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하얼빈시 행정구역 산하 하얼빈시내 및 오상, 상지, 아성 등 지역 조선족부모들 고향은 대부분 경상도 등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남부지역의 생활문화풍속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목단강시. 녕안시 등 목단강시 행정구역 산하 지역은 대부분 한반도 북부지방 출신으로 지금도 함경북도 등 북부지역의 생활문화를 간직하고 있다.[12]

1926년 전후부터 조선민족의 이주가 시작된 강서촌은 1937년 전후 일제에 의해 집단마을이 건설되기도 했다. 1945년 해방 이후 1947년부터 토지개혁이 시작되어 1950년 촌의행정체계가 완성되었는데, 그 이후 다른 마을에서 찾아보기 힘든 몇 가지 특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 첫째, 1950년 촌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성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여구락부(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여가를 활용해 영화상영이나 공연을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20ha의 논을 배정했다. 이 구락부의 희망자는 40여명이 되었고, 농장의 수입으로 악기를 구입해 가무단을 조직했으며, 학교의 음악선생님을 초빙해 악보공부와 악기 다루는 방법, 무용연습 등으로 예술적 능력을 배양하는 활동을 했다. 1954년 녕안현에서 시행된 경연대회에서 전 현 조선족촌 가운데 1등을 했고, 1964년 국경절에는 북경에서 시행된 소수민족 경연대회에서 새 장고춤이 우수종목으로 선정돼 호평을 받았다.
>
> 둘째, 1973년 마을 앞을 흐르는 목단강의 물을 이용해 자력으로 수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 이후 완공 직전 다량의 전기 수요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해진 정부가 인계해 1981년 현재의 규모로 확장•건설했다.
>
> 셋째, 목단강 제약공장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이 상용하는 20여 종의 중약과 양약을 제조하는 제약공장을 설립했다.
>
> 넷째, 1979년에는 주택개량사업으로 대지 500㎡에 100㎡이상의 건평에 바둑판과 같은 도로를 갖춘 붉은 벽돌집들을 지어 마을의 면모를 일신했는데, 이것은 중국 농촌마을 건설의 모체가 되었다.
>
> 다섯째, 이 마을과 인접한 향수촌 등은 전 중국에서 가장 좋은 쌀이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오염이 없는 물과 논 아래 석강이라는 용암석이 있어 낮에 달궈진 용암석의 열이 밤중에도 식지 않고 벼의 생육을 돕는다. 이러한 조건에도 만족하지 않고 역대 공산당 지부서기들은 선진적인 정미소를 설치하는 등 강서 쌀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시도, '강서반석벼'라는 상품으로 개발해 타지방보다 2-3배 정도의 높은 값으로 보급하기도 했다.[13]

1980년대의 개혁개방, 1992년의 한중수교는 흑룡강성 녕안시에도 예외 없이 변화

11) 인구수는 호적인구 기준이다. 류충걸•김석주•김화, 『흑룡강성조선족 인구와 경제』, 연변인민출판사, 2008, 35쪽.

12) 박련옥, 「흑룡강성 조선민족 문화 여행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황유복•류경재•정희숙•조셉윤, 『글로벌 코리안 경제 문화 네트워크』, 민족출판사, 2008, 306쪽.

13) 강위원, 『흑룡강성의 조선족』, 고함커뮤니케이션, 2005, 92-94쪽.

의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농촌마을인 강서촌에서도 인구유출을 막아야 했다. 강서촌은 경박호와 가까운 지역적 우세를 빌어 현지 경제산업을 선도하려 고심해왔으나 대외에 홍보할 만한 풍경과 민속문화 기반이 탄탄치 못한 탓으로 관광객 유치에 부진을 겪어왔다. 처음에 강서촌에서는 주로 가정을 단위로 전통음식을 만들어 도시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맛보였다. 따라서 규모 역시 아주 작았다. 2000년 이후 촌지도부에서는 민족문화 여행산업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차츰 그 규모를 넓혀갔다. 현재 마을에는 10여 호의 민속음식 전문점과 50여 호 가정음식점에서 전통음식 문화체험 여행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명실 공히 "일품촌(一品村)"으로 발전해갔다. 해마다 국내외 여행손님이 연인원 2만여 명이 다녀가는 강소촌은 마침내 2005년 조선족사회에서 최초로 강서촌 조선족 "유두절" 행사를 개최했다.[14] 촌지도부는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면으로 연구한 결과 우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민족풍속상품을 개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영안현 출신 민속학자 천수산 선생의 지도를 받아들인 것이다.[15]

2005년과 2006년 연이어 개최된 강서촌 유두절은 2007년 2월 흑룡강성 제1회 무형문화재 명부에 올라갔다.[16] 유두문화제가 영안시 정부가 주최한 2008년 7월17일 제3회 행사이후 '유두절'은 강서촌의 독특한 전통명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이날 덕망이 높은 강서촌 6명의 로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었다.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조선족 특색의 검은 모자를 쓰고 짚신을 신은 6명 로인이 천천히 제사대 앞으로 다가서 동쪽으로 향해 술 석잔을 주위를 향해 부은 후 절을 세번 올리면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술 석잔은 백성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풍작을 많이 거둔다는 뜻이다. 그 뒤로 촌민 남녀로소가 동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발을 씻으면서 평안무사를 기했고 선조들이 창조한 농경문화의 우의(寓意)를 체득했다. 그리고 류두천신(流頭荐新)식, 세두목욕식, 전통류두놀이 등 류두절 조선족전통풍속놀이가 이어졌다.[17]

[그림 3] 2008년 7월 제3회 유두절 행사모습 (사진: 흑룡강신문)

14) 박련옥, 307-308쪽.

15) 1980년대부터 조선민속연구를 연구한 천수산은 유두절뿐만 아니라 후술할 백중절도 복원한 인물이다. 천수산, 『중국 조선족 세시풍속』, 연변인민출판사, 1998 참조.(6월과 7월의 풍속편)

16) 흑룡강성예술연구소와 강서촌 촌민위원회가 공동으로 흑룡강성 무형문화재보호센터에 신청해 조선족무형문화유산으로는 처음으로 성급 보호항목이 되었다.

17) 『흑룡강신문』 2009-02-11 「류두절 강서촌 전통명절로 자리매김」

2009년 4월 강서촌은 제2차 흑룡강성 새 농촌건설 시범촌이 되었으며, '**흑룡강 제1조선족촌**' 건설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마을 안에 면적이 3000여평방미터에 달하는 아담진 **문화레저광장**과 면적이 2000여평방미터에 달하는 문구(게이트볼)장 4개가 마련돼 있어 촌민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다채롭게 벌리고 있다. 현재 이 촌의 도로 및 담장 표준화율은 모두 100%에 달한다.[18]

2009년 8월5일 강서촌에서 열린 제4회 유두문화절행사는 처음으로 강서촌 자체의 힘으로 조직된 행사였지만 아주 성공적이었다. 강서촌민 전체가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가 영안시 각 분야의 조선족간부와 조선족 유지인사들, 각 조선족촌들이 참여하여 명절의 분위기를 더 짙게 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기치아래 농악무, 풍수무 등 집체무표현에 이어 머리감기 행사가 있었는가 하면 농신과 조상을 향한 제사행사가 정중하게 진행되었다. 유두연(流頭宴) 또한 이날 유두절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치러졌다. 조선족들의 전통음식문화를 자랑하는 찰떡치기, 무침반찬만들기 등 행사들이 많은 관광객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반나절간의 유두절행사에 이어 우리민족의 전통체육종목인 축구, 배구, 씨름, 그네, 널뛰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져 유두절은 그야말로 조선족의 전통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형행사로 되기에 손색이 없었다.[19]

유두절행사를 통해 강서촌은 인지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유두절행사는 강서촌의 관광업을 크게 진작시켰다. 편벽한 농촌마을에서 치러진 행사였지만, 신화사, 중앙인민방송국, 연변텔레비전방송국과 흑룡강성, 목단강시의 많은 언론매체들이 열띤 취재를 펼쳤는가 하면 한국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연속 2년간 유두절행사를 후원했다. 현재 강서촌에는 상급 관광부문에서 인정한 '천향만촌 관광접대 단위' 자격을 획득한 음식점과 민박이 20여개에 달하며 여름한철 찾아드는 손님과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영안시내나 목단강시에서 모여온다. 강서촌의 한해 음식업 순수입만도 중국돈 200여만 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강서촌의 유두절은 가무 <류두절에 풍년을 기약하네>를 통해 영안시조선족 2010년 '민족의 봄' 음력설문예야회에서 각광을 받았으며,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은 흑룡강성을 대표하여 2010년 5월에 열리는 상해세계박람회에 나서는데 발해진 강서촌의 조선족 류두절이 민풍민속특색으로 상해세계박람회에 나가게도 되었다.[20] 마침내 흑룡강성 발해진 강서촌의 '유두절'은 2010년 7월에 개관한 국적으로 유일한 조선족무형문화재 주제전시관인 중국조선족무형문화재전시관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전시관에는 도문의 무형문화재외에도 연길의 '장고춤', '학춤', 요녕성의 '걸립무', 흑룡강성 발해진 강서촌의 '류두절' 등을 포함한 8대류 52가지의 각급 무형문화재가 입주한 것이다.[21] 이로써 중국의 국내외는 물론 한국

18) 『흑룡강신문』 2009-09-16 「성급 새농촌건설시범촌 녕안 강서촌 '용강 제1조선족촌' 건설에 박차 」

19) 『흑룡강신문』 2009-09-02 「유두절 녕안시 조선족전통명절로 자리매김」

20) 『흑룡강신문』 2010-02-09 「녕안시조선족 '민족의 봄' 음력설문예야회 각광」, 『흑룡강신문』 2010-02-11 「강서촌 류두절, 상하이세계박람회서 선보인다」

사회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 도문 국제두만강문화축제가 한국인 총감독 체제 아래 많은 한국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바로 중국조선족무형문화재전시관이 위치한 도문시 두만강 광장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2011년 7월15일 제5회 유두문화제는 강서촌 촌민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영안시 문화체육부, 영안시조선족문화관, 발해진정부에서 주관했는데, 『흑룡강신문』[22]뿐만 아니라 『연변일보』[23], 『길림신문』 등 조선족사회 언론매체에도 소개되었다. 아래 그림은 『길림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24]

[그림 4] 2011년 제5회 유두문화제 행사모습들 (사진: 『길림신문』)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조선족강서촌의 유두절은 위기에 처한 중국 조선족 농촌사회가, 중국 정부의 새농촌건설 지원사업도 있었지만, 창의력을 발휘하고 유관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발한 한민족의 민속문화를 새로운 킬러콘텐츠로 개발

21) 『흑룡강신문』 2010-07-21 「도문 중국조선족무형문화재전시관 건설」

22) 『흑룡강신문』 2011-07-15 「녕안시 전통명절 강서촌 제5회 류두절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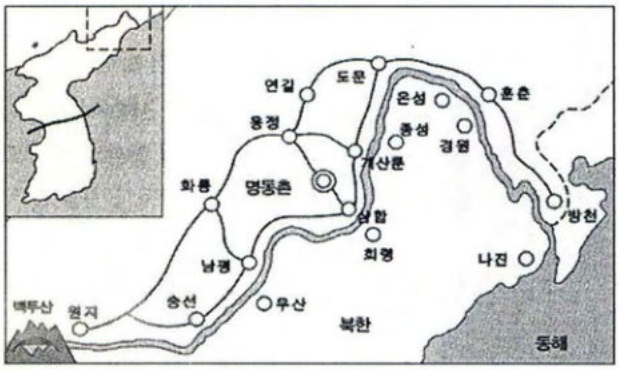
23) 『연변일보』 2011-07-20 「녕안시 강서촌 제5회 류두문화축제 펼쳐」

24) 『길림신문』 2010-07-17 「녕안시 강서촌 제5회 류두절 성황리에」

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강서촌 오철수 당지부서기의 언급을 다시 새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류두절은 조선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조선족의 교류, 래왕을 통해 단결을 도모하며 촌민들에게 새농촌건설의 의식을 전수하여 새농촌건설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주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며 특히 강서촌의 민속풍정원, 관광문화산업을 널리 알리는 전통명절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25]

2.길림성 용정시 개산툰진 광소촌의 백중절(농부절)



[그림 5] 용정(연변) 간략지도(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cejtongil)

용정은 중국 조선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민족에게 특별하다. <서시(序詩)>의 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明東)과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래가 만들어진 선구(船口)가 모두 용정 땅에 있기 때문이다. 용정은 '중국 조선족의 이민 첫 동네'요 과거 '조선족의 문화중심'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조선인의 이주의 주요경로인 회령→삼합(명동), 종성→개산툰(선구)의 루트가 모두 용정이다. 또한 1906년 용정에 세워진 근대학교인 서전서숙이 1년 만에 문을 닫자 서전서숙을 뒤이어 1908년 명동학교(명동)와 정동학교(개산툰 후에 광소촌으로 이전)가 세워졌는데, 1920년대까지 명동과 개산툰은 용정(시내)에 앞서 조선족의 문화중심을 이룬 곳이었다.

2008년 4월과 5월 용정을 방문한 필자는 한국인을 위한 백두산관광 여정에 1-2일을 연장하여 한민족에게 특별한 용정을 들려볼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문화지도의 초기 형태인 '용정문화루트'(제1일과 제2일 코스)를 제안한 바 있다.[26] 당시 필자는 '역사문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역사•민속문화'로 시야를 넓혀 1일 추가코스로 '용정-도문문화루트'를 개발했다. 용정에서 자동차로 출발하여 북한 종성으로 통하는 개산툰통상구까지 불과 40분이면 충분하다. 명동에 버금가는 역사문화의 고장 개산툰을 보고, 다시 발길을 되돌려 두만강길을 따라 가면 바로 정동학교터와 어곡전의 고장인 개산툰진 광소촌이다. 광소촌에 이어 선구나루터인 선구촌, 그리고 도문시 경내로 들어가면 농촌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월청진 백룡촌[27]을 거쳐 중국조선족무형문화

25) 『흑룡강신문』 2009-02-11 「류두절 강서촌 전통명절로 자리매김」

26) 임영상, 「연변의 관광문화와 용정, 용정문화콘텐츠」, 『한민족공동체』, 제16호, 2008, 125-127쪽.

27) 1893년에 지어진 조선의 옛 기와집을 중심으로 13채의 전통가옥으로 구성된 백년부락은 한국의 민속마을들을 둘러본 백룡촌 출신 조선족 김경남 씨가 조선족의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 만들었다. 최근 이에 대한 기사로는 다음을 참

전시관[28]이 있는 도문시 두만강광장에 이르기 때문이다.

강서촌이 한민족의 세시풍속 유두절(음력 6월15일)을 회복해 관광문화콘텐츠로 개발했다면, 용정 광소촌은 백중절(음력 7월15일)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농부절로도 칭하게 하면서 양력 5월9일 모내기절의 창신 등 단순 한민족의 전통뿌리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조선족 농경문화특색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유두절을 회복한 강서촌에 오철수 당지부서기가 있다면, 백중절(농부절)을 부활시킨 어곡전 마을인 광소촌에는 전국노동모범서기인 김룡수가 있었다. 광소촌은 현재 586세대의 농가가 있으며 농업인구는 2,253명, 경작지면적이 718헥타르인데 그중 논이 195헥타르다. 지난날 촌민들은 비록 같은 벼, 옥수수, 콩 등 농작물을 재배했지만 전통적 사유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입은 줄곧 낮은 수준에서 맴돌았다. 1999년 12월 김룡수는 광소촌 당지부서기 직무를 맡은 이래 마을의 농업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농가의 수익증대를 이루었다. 목축업을 일으키고 주문농업방식을 도입해 수익성이 높은 콩, 한국무우종자, 약재 등을 재배하고 판로와 가격을 보장했다. 김룡수는 또 광소촌의 어곡전(御粮田)을 리용하여 2007년 어곡전협회를 설립하고 회원 100명을 받아들이고 70헥타르의 논을 협회의 무공해 벼 재배기지로 정하고 시장에 고가의 브랜드입쌀을 출시했다.[29]

어곡전 마을을 알리는데 앞장선 것은 개산툰 사람인 심정호씨다. 그는 "어곡전"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연변일보』에 「강덕황제의 어곡전」 제목으로 개재하고 자비로 "강덕황제<어곡전>비"를 세우기까지 했다.(1995년) 비록 기념비는 폐품수집소에서 구한 넓이 1m, 길이 1.5m의 철판으로 만들었지만 제막의식도 가졌다. 그 후 『연변일보』 1면에 사진까지 실린 기사가 보도되는 등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자, 그는 '어곡전'이라는 명물을 빌어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고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이곳에서 생산하는 입쌀을 상품화하여 판매에도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때 백중절을 농부절로 부활시키고 용정어곡전협회를 적극 후원한 용정의 중의(한의)사 오정묵 선생의 지원으로 2006년 9월22일 높이 3m가 넘고 무게가 8톤이나 되는 자연석 어곡전 기념비를 다시 세웠다.[30]

어곡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오정묵 원장은 어곡전 기념비 제작을 지원하고 농촌문화광장을 조성했다. 또한 2007년 제1회 행사부터 2010년 제4회 행사까지 농부절(백중절) 행사비용을 거의 전적으로 부담했다. 또한 어곡미의 홍보와 판매 등을 주관하는 어곡전관광제품개발유한회사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최근 「어곡미 관광상품으로 인기」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는 장춘위만황궁박물원과 룡정시어곡

조. 『흑룡강신문』 2011-08-13 「조선족의 '혼'이 담긴 백년부락'-백룡촌」

28) 흑룡강성 강서촌의 '유두절'이 소개된 곳으로, 전 연변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두만강문화축제가 열리는 두만강광장에 위치해 있다.

29) 『길림신문』 2010-05-25 「어곡전 마을의 전국로동모범서기」

30) 심정호 편저, 『두만강은 흐른다』, 연변인민출판사, 2010, 386-390쪽. (「두번 세운 기념비」)

전반광제품개발유한회사가 상호협력 공동발전의 원칙에 따라 꾸린 위만황궁박물원 어곡전전시관에 여러가지 규격으로 정교하게 포장한 어곡미와 어곡전에 관한 력사자료, 도편과 황제 부의가 어곡미를 생산한 최학출농민에게 발급했던 벽시계와 상금 및 당시 어곡미를 정선하던 처녀들이 입고 일하던 복장 등이 전시되고 있는데 힘입은 것이다.[31]

그러면 이제 2007년 광소천 하천평벌 어곡전 마을에서 백중절이 어떻게 부활되었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강서촌 유두절도 그렇지만, 광소촌 어곡전마을의 백중절도 민속학자 천수산 선생의 공헌이 컸다. 2007년 초부터 개산툰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민속, 문화, 관광 등 분야 의학자, 전문가를 청하여 **어곡전민속촌건설세미나**를 가져 어곡전민속촌건설전망계획을 추진했다. 천수산 선생은 「농부절의 력사적 연원과 현실적 의의」라는 글에서 고대국가인 진국의 마한지방에서 매년 5월에 씨뿌리기가 끝나면 농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모여서 밤을 새우며 마시고 춤추고 놀았으며 10월 추수때도 그랬다고 지적하면서, 백종(중)절도 역시 이러한 명절인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7월 보름이 되면 김매기를 끝마치고 곡식의 성숙과 수확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백종절을 농민들의 명절로 해석했는데, 백종절은 계절적으로 농한기에 들어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으로 민속놀이를 벌리기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잘 살려 농촌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명절활동을 통해 자기 마을을 세상에 널리 선전할 수 있음으로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농산품을 대외에 판매하는 데에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32]

마침내 2007년 8월27일 제1회 어곡전민속대축제가 개최되었는데, 다음은 『길림신문』의 보도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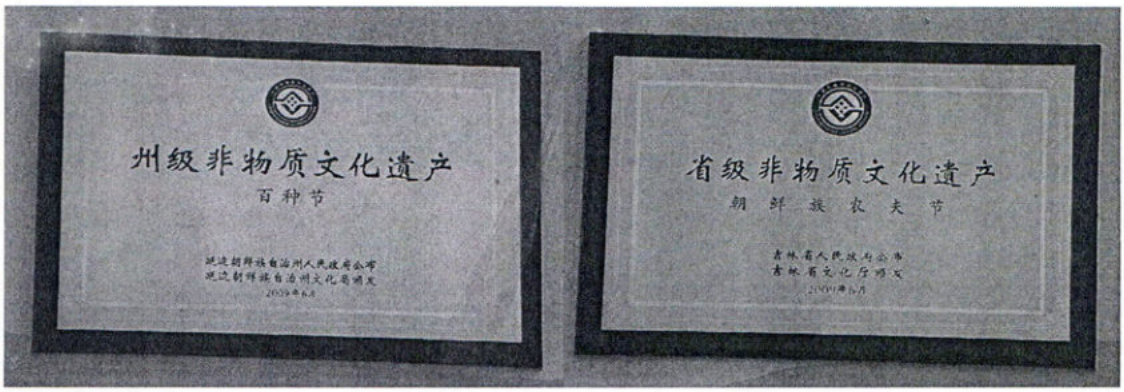
> 백가지 남새, 과일이 풍성한 한창철인 음력 7월 15일을 전통상 백종(百種)절이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후에 백중(衆), 백중(中) 등으로 표기되었다고 한다. 백중 때면 농사일이 일단락 쉬게 되면서 백곡이 영글어가는 가운데 추수를 기다린다. 민간에서 7월 백중을 호미씻기, 머슴명절이고 부른다. 이때면 호미를 씻어 두는 때고 옛날 농사를 짓던 머슴, 소작인, 자작농 등 실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한숨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벌렸다고 한다. 룡정시 개산툰진 지금의 광소촌 하천평 마을은 어곡전으로 사상 유명한 곳이다. 력사문화재를 개발하여 오늘날 지역의 브랜드문화, 관광문화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장성 및 새농촌건설을 도모하는 가운데 룡정시 《어곡전》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 백중날 어곡전민속대축제를 가져 《어곡미》 및 《어곡미》 고향건설을 널리 알리였다. (…) 어곡전민속축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어곡전 소재촌 광소촌의 농부락(農夫樂) 농부절행사였다. 광소촌에서는 이번 어곡전민속축제를 준비하면서 올해부터 7월

31) 『연변일보』 2011-08-17 「어곡미 관광상품으로 인기」

32) 심정호, 40104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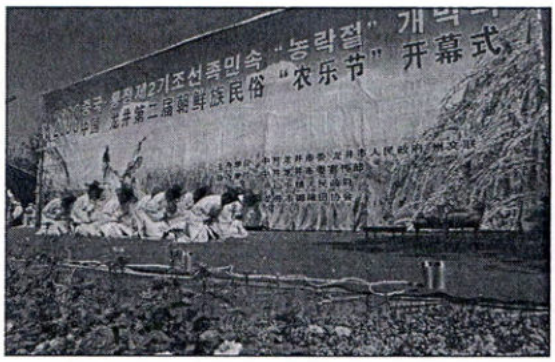
백중을 광소촌의 명절—《농부절》로 정했다고 한다. 이날 이 촌에서는 례를 갖추어 백중제(마을의 안녕과 농사 풍작을 기원하는)를 올렸고 제1회 어곡전장원을 선발하여 5000원을 시상, 장원농부를 꽃가마에 태우고 농악단까지 따르는 《농자천하지대본》이란 연전을 든 6,70명의 대행렬이 어곡전광장을 들썽케 한 장관을 이루었었다. 광소촌 김룡수촌장은 어곡전협회 회원농민을 비롯해 광소촌에서는 어느 때보다 농사열의가 높아가고 있으며 《어곡미》 생산에 농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한다. 어곡전개발로 입쌀의 브랜드화가 실현되고 관광농업까지 겸할 수 있어서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기뻐한다고 한다.[33]

2008년 다시 광소촌의 백중절, 농부절 행사가 성대히 거행된 후, 용정문화관은 이를 중국 조선족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백중절은 연변주급무형문화유산, 농부절은 길림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민족의 전통민속으로 회복된 백중절도 평가했지만, 이를 조선족 농경문화특색을 반영한 농부절로 재창조한 것을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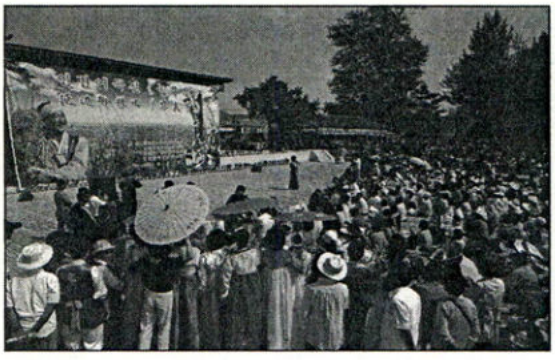


[그림 6] 광소촌에 나란히 걸려 있는 자료들 (사진: 리광평)

아래는 광소촌의 농부절 행사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 리광평 전 용정문화관 관장이 촬영한 농부절 행사모습들이다.



33) 『길림신문』 2007-09-04 「어곡전마을의 농부락」



[그림 7] 농신제, 장원농부, 행사장전경, 농사일재현행사 (사진: 리광평)

Ⅲ. 용정 백중절(농부절)과 용인 백중문화제

백중절을 복원하면서 또한 이를 농부절로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자 연변사회는 크게 환영해 마지않았다. 또한 그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한광운과 김향은 「농부절이 갖는 문화적 의의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농부절은 ①조선족의 농경문화특색과 전통문화의 뿌리를 되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②우리의 전통명절문화의 이미지를 더한층 돋보이고 농촌의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꾸며가야 하고, ③생태문화발전과 사회주의농촌 새농촌건설을 다그치는데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어곡전 마을은 농부절을 선양함에 있어서 반드시 문화적 환경과 조건들을 마련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접촉하고 전통문화의 심미관과 문화적 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농부절은 광소촌이란 지정된 지역을 넘어 전 조선족지역에 전파되어야 하며, 중국 내지 더욱이는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홍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34]

김남호는 「농부절 놀이문화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에서 ①농부절의 탄생을 구삼절(1952.9.3 연변자치주성립기념일), 노인절(1983년 이후 8.15에 기념)에 이은 연변인민들이 창조한 세 번째 민속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농부절이니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놀아보자"는 생각이라면 하필 농부절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②농부절은 민속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부절 놀이표현은 화려한 무대에서의 문예공연이나 종목과는 달리 실감있는 농경생활의 진실한 환경한 마련한 기초상에서 놀이종목이 이루어져야 하며, 복장도 화려하거나 실생활과 떠난 복장이 필요 없으며 무대보다도 관람자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마당이 좋을 것이며 민족악기를 쓰는 것이 민속성을 구현함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③농부절은 지방적 향토맛이 있어야 하며, ④농부절은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농민들을 이끌고 사회의 여러 민간단체들이 협조하는 원칙을 견

34) 심정호, 406-412쪽.

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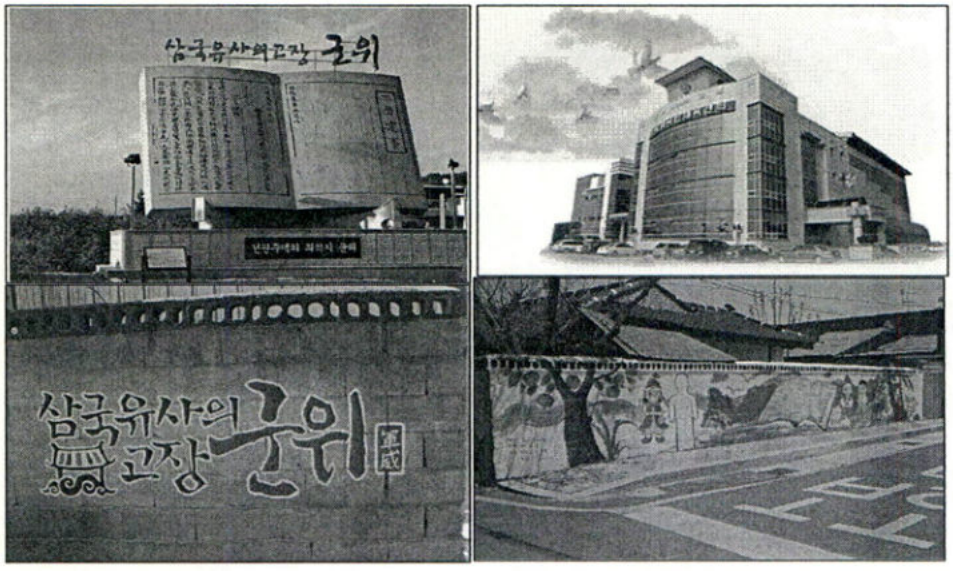
필자는 지난 7월14일 용인문화원 김장호 원장님의 주선으로 전 용정문화관 리평 평 관장의 한국체류에 맞추어 백암면을 방문했다. 용인과 용정의 친화성을 언급하고 도시차원이 아니더라도 문화원/문화관 차원에서 양측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용정이 조선족사회에서 처음으로 백중절을 회복했다고 언급한 것을 김장호 원장님이 기억했던 것이다. 그날 필자는 백중문화제에 대한 백암지역문화제추진위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백중문화제는 용정 광소촌의 농부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암의 백중문화제 또한 백중절의 전통성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의 백중문화제는 농부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백암주민 모두와 백암의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용인의 다른 지역 사람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백암의 지역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누리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민이 손님이 되는 축제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백암뿐만 아니라 처인구뿐만 아니라 기흥구와 수지구 사람들과 관내 대학과 유관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용인시 지원을 받아 용인학을 강의하는 5개 대학과 특성별로 협력관계를 맺으면 가능하다. 축제기간에 한택식물원과 황새울농장 등과의 협조도 가능할 것인데, 특별히 사철 한국의 장터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용인-MBC 드라미아와의 협력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③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대표축제로 발전하여 '글로컬 용인'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시스템을 면사무소 산하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설 백중문화제위원회의 구성이다. 우선은 카페/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젊은이에게 최소의 수고비를 주고 주1회 면사무소를 방문해 위원회와 대화를 갖고 전문가 그룹을 관리하면 될 것이다. 축제가 다가오면 당연히 용인문화원이 협력할 것이지만, 자체로도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민족의 이야기 원천인 『삼국유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경북 군위군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음을 소개한다. 삼국유사문화랜드를 만들고 있는 한편, 군위 홍보물에 삼국유사 책을 펼쳐 놓았고, '군위'교육문화회관의 이름도 아예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으로 바꿨다. 마을 담장도 삼국유사 이야기로 장식함으로써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나 '군위'하면, '삼국유사'를 연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35) 심정호, 413-421쪽.



[그림 8] 경북 군위군과 삼국유사 브랜드화 노력

여 백

발 제 1

백중놀이 우란분재 호미씻이, 그리고 밀양 백중놀이

장 두 식(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교수)

1. 들어가는 말

백중은 음력 7월 보름에 열리던 우리 고유 세시풍속의 하나다. 백중에 펼쳐지는 백중놀이는 주로 중부 이남 농촌에서 세벌 김매기가 끝난 후 여름철 휴한기에 열리던 머슴과 농민들의 명절이었다. 백중놀이는 '호미씻이', 혹은 '머슴날'이라고도 하는데 논매기를 마친 후 그동안의 노고를 풀기 위해 벌이는 한바탕 축제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잊혀져가는 풍습이 되었다. 품앗이와 두레가 사라지면서 농경 세시풍속인 백중놀이도 단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밀양에서 단절되었던 백중놀이를 복원하여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관심을 이끌었다. 새로운 전통놀이로 창출된 밀양 백중놀이는 전통계승의 새로운 방향성과 함께 서민예술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밀양백중놀이가 이전의 백중놀이와는 달리 백중과 관계없는 연희를 삽입시키고 춤 중심의 공연성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전통의 왜곡이라는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란 언제나 현재의 적합성 속에서 변용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밀양백중놀이는 당연히 전통놀이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밀양백중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 68호로 지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농경세시풍속이었던 백중과 백중놀이의 유래와 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운 전통놀이로 창출된 밀양백중놀이의 특성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단절된 백중놀이의 복원과 계승을 모색하는데 있다.

2. 백중과 우란분재

백중은 불가의 우란분재(盂蘭盆齋)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우란분재는 원래 음력 7월 보름날에 행하던 불사(佛事)인데 부처의 4대 명절(생·출가·성도·열반)에 더하여 우란분재가 행해지는 5대 명절에 해당된다. 우란분(盂蘭盆)은 범어의 'Ullambana'를 음사(音寫)한 오람파라(烏籃婆拏)가 와전된 것이다.[1] 우란분재는 동북아시아 불교권의 대표적인 불교의례이다. 현응(玄應)이 정관(貞觀) 연간

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百中' 항목

(627~649)에 편찬한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에는 우란분이 오람파라의 와전된 말이며, 그 의미는 꺼꾸로 매달린다는 도현(倒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죄를 짓고 죽은 조상은 저승에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게 되고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는데 이를 풀어주기 위한 불가의 행사가 바로 우담분재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는 목련존자가 아귀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우란분경(盂蘭盆經)[2]에서 연유한다. 우란분경에는 해마다 7월 15일에 효순한 마음으로 부모와 과거 7세 부모를 생각하여 우란분을 만들어 정례적으로 예불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우란분재는 기록상으로는 중국 양무제(梁武帝) 4년(538)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중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게 된다.[3] 중국의 우란분재는 도교의 중원절(中元節)과 융합되면서 중국인의 대표적인 민속이 되었다. 도교에서 삼원절(三元節)[4]에는 天·地·水 삼관(三官)이 사람들의 죄업을 교산(校算)하는데 신도들은 자기가 행한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재계와 참회를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도교의 중원절과 우란분재가 결합된 것이다.[5]

한국에서 우란분재는 예종(睿宗) 원년(1106) 7월 계묘일에 우란분재를 열러 숙종의 명복을 빌었다는 「高麗史」(12권)의 기록에서 살필 수 있듯이 고려시대 보편적인 불사였다. 이색(李穡)은 「孟秋望日記事有感」란 시에서 우란분재를 "온 나라가 뒤질세라 분주히 치달리는 때"라고 묘사하기도 했다.[6] 그런데 한반도에서 우란분재가 설행된 시기는 이보다 앞섰을 것이다. 중국 남조와 빈번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백제에서도 우란분재가 설행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일본서기」에 657년에 우란분회를 설행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백제가 우란분재를 설행했다면 당연히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우란분재를 설행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우란분재는 백중과 함께 설행되었다. 백중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국 고유의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7] 그런데 백중이라는 용어보다는 「太宗實錄」과 「世宗實錄」과 같은 사서에는 백종(百種)이란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매순(金邁淳)이 한양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洌陽歲時記(1819)」에는 백종(百種)이 신라시대 가배(嘉排)와 관련된 백종일(百種日)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신라와 고려시대 우란분의 공양을 모방한 유속을 따라 중원일에 백가지 꽃과 과일을 부처님에게 공양하므로 백종의 말이 생겼다고 두개의 설을 살피고 어느 것이 옳은 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았을 뿐 그 행사는 없

2) 진대(晉代)(265~316) 법호(法護)가 번역

3) 김상영(2009)「우란분재의 의미와 설행의 역사」, 『불교학연구』 제22호, pp. 184~187

4) 上元(음력 정월 15일), 中元(음력 7월 15일), 下元(음력 10월 15일)

5) 김상영(2009) Ibid., p.189

6) Ibid, p.199

7) Ibid, p.201

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8] 우란분재는 조선의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서 약화되면서 지배층인 사대부 보다는 민간 백성들의 제의로 변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열양세시기」에 백종날 "승가에서는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를 올리고 시정의 백성들은 서로 모여 흥겹게 논라"라고 기술하는 것처럼 우란분재는 백중이란 세시풍속으로 점차 변용되었던 것이다.

3. 백중과 백종(百種)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에는 백중보다 백종이란 명칭이 먼저 나온다. 16,7세기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1525)」와 김육(金堉)의 「송도지(松都志, 1648)」은 백종(百種)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9세기 이긍익(李肯翊 1736년~1806년)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1911)」에는 7월 15일을 백종(百種)이라 부르며 백종에는 중들이 백 가지의 화과(花菓)를 갖추어서 우란분을 설치하고 예불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의 「규합총서(閨閤叢書, 1809)」와 서유구(徐有榘)의 「이운지(怡雲志)」(『林園經濟志』1806~1824)와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에서도 백종(百種)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조재삼(趙在三)의 「송남잡지(松南雜識 1855)」에서는 '百種·白中'으로 병기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중외일보』 1930년 9월 22일자 "춘천의 백종노리"기사와 『동아일보』 1934년 8월 24일자 "中元節의 盂蘭盆會 農夫는 放牛洗鋤"라는 기사에는 백종(百種)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일제강점기에도 백종이란 명칭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기사에는 백종보다도 세서연(洗鋤宴)이란 명칭이 많이 등장한다.

해방 이후 출간된 최남선(崔南善)의 『조선상식(朝鮮常識)』(동명사, 1948) 풍속편에서는 "칠월 십오일을 백중이라 일러 漢文으로 百種, 魄縱, 白踵[9], 白衆 等의 字를 쓰니, 그 語義는 다 未詳하며 그 漢字에 대하여 여러가지 强解가 行하되, 실상 確據가 없으며, 要컨대 農事進行相의 어느 階段에 있는 固有의 一行事와 佛敎 道敎의 要素 등이 雜糅 하여 特殊한 일 形態를 구성한 節日로 볼 것이다"라고 기술하면서 '백중'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듯 백중이란 명칭은 百種의 어의 전승과정에서 파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문헌자료를 살펴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4. 백중과 호미씻이

8) ibid., pp.205~206

9) 「송남잡지」의 "승가에서는 이날 모두 발을 씻으므로 백종이라 했다(僧家是日皆洗足故謂白踵)"라는 기록에서 그 어원을 살필 수 있다.

불교와 도교적인 요소가 융합된 중국의 우란분재는 한국으로 유입되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결합하면서 많은 변용과정을 겪게 된다. 즉 조선시대에는 우란분재보다는 백종이란 고유한 세시풍속화 되어 한국인들이 즐기는 명절이 되었다. 「동국세시기」에는 백종일이 사찰에서 행하는 우란분회와는 달리 민간에서는 망혼일(亡魂日)이라 하여 중원(中元)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을 갖추고 죽은 어버이의 혼을 부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세시기(朝鮮歲時記)」에서는 백종절(百種節)이 도시의 사녀(士女)가 주찬(酒饌)을 성대하게 차리고 산에 올라가 가무(歌舞)로 놀이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백중이 의례적인 성격에서 놀이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백중놀이가 한국 고유의 세시풍속화 되는 데에는 농경세시풍속인 호미씻이(洗鋤宴)와의 융합과정이 있었다. 호미씻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서 흔히 행해진 농경 세시풍속의 하나인데 농촌에서 한 해의 농사일 중 가장 고된 작업인 세벌논매기가 끝나면, 머슴과 농사꾼을 위로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벌이는 축제성 놀이였다. 경남지역에서는 이를 '머슴날'이라고 하였다.[10]

「용재총화」와 같은 조선시대 전기 기록에는 백중일은 농민들의 호미씻이와 관련 없이, 불교적인 의례가 행해진 날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호미씻이에 대한 기록들은 중기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유(張維 1587~1638)가 한시(漢詩) 「세서(洗鋤)」를 창작했고 유중림(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1766)」에는 '세서회(洗鋤會)'라는 명칭이 나오고 우하영(禹夏永)의 「천일록(千一錄, 1796)」에는 '세서연(洗鋤宴)'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이러한 문헌에서 살필 수 있듯이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오면서 백중은 우란분재라는 의례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호미씻이라는 놀이와 결합되면서 현재의 백중놀이라는 세시풍속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미씻이에 대한 장유(張維)의 한시(漢詩)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호미씻이의 정경을 살필 수 있다.

호미씻이(洗鋤)

"농가에서 김매는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남녀노소가 한데 모여 먹고 마시는 것을 호미씻이[洗鋤]라고 하는데, 내가 시골에 살면서 그 일을 눈으로 확인했기에 이를 시로 기록하였다"

남정네는 하얀 대오리 갓 머리에 쓰고(田翁白竹笠)
여인네는 푸른 무명 치마(田婦靑布裙)

10) 머슴날은 세벌논매기가 끝난 후 추수까지 한 달 여유가 생기는데 이 시기기 백중(음력 7월 15일)과 맞물리게 된다. 그리하여 백중 전후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즐겼던 날이었다.

삶은 박에 오이 썰어 새우도 듬뿍 올려놓고(烹匏斫瓜薦鰕魚)
오래 된 옹배기엔 막걸리가 찰랑찰랑(老瓦盆盛黍酒渾)
잔디 덮인 언덕의 뽕나무 그늘 아래(靑莎原頭桑葉陰)
앉자마자 사방에서 꽃 피우는 농사 얘기(坐來四座農談喧)
저쪽은 이쪽보다 김매기가 늦었다느니(東家耘較西家晩)
아랫배미가 윗배미보단 벼가 더 잘 됐다느니(低田禾比高田繁)
잔 돌리는 청년들에 노인들 거나해져(少年行酒長老醉)
짧은 옷소매 일어나서 춤도 절로 덩실덩실(短袖起舞何蹲蹲)
일 년 내내 고된 농사 이 날 하루 즐거움(一年作苦一日歡)
농촌 들녘 오늘만은 모든 근심 잊으리라(田家此夕百憂寬)
알다시피 지난해 세금 독촉 아전이 들이닥치자(君不見去年吏到索租時)
바삐 마련하랴 사흘 굶기도 하였었지(翁姥狂奔三日飢)
농부들 즐거운 일 어찌 쉽게 얻으리요(田家樂事豈易得)
가지 말고 천천히 실컷 먹고 취하시라(勸君醉飽無遽歸)[11]

위의 시에서 살필 수 있듯이 호미씻이는 김매기를 마친 농민들이 고된 농사일을 일단락 한 후 술과 음식으로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행사이다. 호미씻이 축제는 김매기 철이 복중(伏中)과 장마철에 걸쳐 있어 농부들과 머슴들의 피곤해진 심신의 노고를 달래 주려는 의미가 있었다.[12]

호미씻이는 지역에 따라 질꼬랭이(전남 해남), 장원질놀이(전남 광양), 써래씻이(강원도), 농현(전북 군산 칠월칠석-호미걸이), 草宴·풋굿(경상도 북부) 꼼배기놀이(경남 밀양) 꼼비기(경북 구미·선산)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그 놀이 형태도 조금씩 달랐다.

경남지역의 호미씻이를 살펴보면 호미씻이에 대해 통용되는 명칭이 없고 지역별로 각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머슴날'로 인식되었다. 즉 밀양에서는 '꼼배기 먹인다', 영산에서는 '괭이말이', 거창에서는 '호맹이 씩기', 의령에서는 '머슴날', 함안에서는 '상놈 명절'이라고 하였다. 백중날이 되면 머슴을 둔 농가에서는 머슴들에게 백중옷을 한 벌 지어 입히고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숲속이나 강가에서 하루를 즐겁게 지내도록 했다. 이때 머슴들에게 밀과 콩을 섞어서 볶은 '꼼배기참'을 나누어주었다. 미리 뽑아놓은 좌상(座上)을 소에 태우고 동네 집집을 돌면서 술과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전곡(錢穀)을 얻기도 했다. [13] 그리고 가장 농사가 잘된 집에 들르면 푸짐한 대접을 받게 된다.[14]

---

11) 한국고전국역원 역, "호미씻이(洗鋤)" 「谿谷先生集」 제26권 『계곡집(谿谷集)』 칠언고시 47수

12) 최충환(2001) 「백중 놀이의 사회 공동체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 레크레이션 학회지』, pp.210~211

13) 배도식(1986) 「밀양백중놀이 연구」, 『한국민속학』 19, p.212

14) 문화재관리국(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남편』 pp.742~743,

영산에서는 품앗이 하던 머슴끼리 한 패가 되어 나이에 따라 선정된 상머슴, 중머슴, 새끼머슴을 소에 태우고 풍물을 연주하면서 성내를 한바퀴 돈 후 주인집에서 술을 마시며 논다. 이 때 다른 패를 만나면 서로 앞서가려고 경쟁을 했다. 오후에는 머슴들이 양반 흉내를 내는 괭이말타기 놀이를 하는데 삿갓을 구겨 뒤집어 써 정자관을 만들고 이마에 숯검정을 칠해 탕건을 만들고 우장을 도포 삼아 입고 짚부채 들고 소를 타고 마을을 돌며 놀았다.[15]

밀양의 북부면 청운리와 초동면 봉황리의 꼼배기 놀이는 세벌 논매기를 마친 후 일꾼 중 일을 가장 잘 한 사람이나 논의 주인을 소나 작두말에 태우고 나발을 앞세운 풍물패를 꾸려 마을을 돌면서 노는 형태의 놀이였다. 소나 작두말을 타는 사람은 작은 삿갓을 쓰고 등에는 짚으로 엮은 도롱이를 걸치게 된다. 이는 양반들의 정자관과 도포를 흉내 낸 것이다. 소하고 작두말은 말과 가마를 빗댄 것이고 할 수 있다. 이들 행차(?)가 세벌논매기를 한 주인집으로 몰려가면 주인은 술과 음식으로 대접을 했다.[16] 밀양의 백중놀이에서 반봉건적인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양반과 상민들의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슴들의 순수한 농경놀이로 시작했지만 양반들의 횡포에 반발하여 저절로 저항성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17] 하지만 이러한 저항성의 해학으로 풀어냄으로써 갈등을 통합하고 있다.

밀양지역의 백중놀이는 1960년대 초반에 중단되었다.[18] 근대화라는 사회변동 속에서 농촌지역의 세시풍속들이 약화되고 백중놀이 또한 중단되게 된 것이다.

5. 밀양 백중놀이

일반적으로 밀양백중놀이는 계승된 전통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원래 1980년에 창안된 새로운 전통놀이이다. 밀양백중놀이는 본디의 전승맥락과는 달리, 지역에서 조각으로 존재하던 여러 놀이, 제의, 춤, 노동요 등을 묶어서 창출된 연희물이다. 즉 밀양백중놀이는 백중놀이의 전통적인 놀이형태였던 꼼배기놀이(호미씻이)와 타 지역과의 변별성을 보이기 위해 첨가한 병신굿 놀이를 결합해서 만든 공연물인 것이다.[19]

밀양백중놀이를 기술한 문화재관리국의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남편』(1972)에는 병신굿놀이가 밀양백중놀이의 전신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런데 병신굿놀이는 1968년 새롭게 만들어진 놀이였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무비판적으로 인용되다 보니 밀양백중놀이가 꼼배기 놀이라는 전통을 온전하게 계승하였다는 오해를 발생하였

15) 삼일민속문화 향상회(1998), 『영산의 민속문화』, p.119

16) 추현태(2004), 「밀양백중놀이의 전통창출과 사회문화적 의미」, 안동대 석사논문, pp.12~13

17) 배도식(1986) op.cit., p.226

18) 추현태(2004),, op.cit., p.12

19) Ibid., pp.1~2

다. 밀양백중놀이는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이지 전대의 세시풍속인 백중놀이를 온전하게 계승한 것이 아니다.[20]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68호로 지정된 밀양 백중놀이는 과거의 백중놀이와는 다르다. 즉 세벌김매기가 끝낸 머슴과 농부들이 풍물을 앞세우고 마을로 들어서면서 즉흥적으로 벌였던 머슴날이나 꼼배기놀이와는 달리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공연으로 변형되었다. 춤 중심의 연희와 백중날과 무관한 행사를 함께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서낭제와 연등제와 같은 겨울철 행사와 모심기와 용제와 같은 봄철 행사를 함께 백중놀이에 포함시켰다.

현재의 밀양백중놀이의 연희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앞놀이판: 유교식 부락제

① 놀이의 시작-매구,징,북,장고로 흥을 돋구고 나발을 세번 불어 시작을 알린다. 農神대를 중심으로 나발, 상쇠, 부쇠, 종쇠, 끝쇠, 수징, 종징, 수북, 부북, 종북, 중북, 끝북, 설장고, 부장고, 종장고, 놀이꾼 순으로 입장하여 허튼춤으로 한바탕 논다.

② 잡막이굿-오방신장(五方神將)을 불러일켜 제사 공간을 청결하게 한다.

③ 모정자놀이-논매기와 김매기 놀이를 한다.

④ 좌상뽑기-들돌놀이나 씨름 등으로 힘발림 시합을 하여 좌상(座上), 무상(務上), 수총각(首總角)을 뽑는다.

⑤ 농신제[21]

⑥ 農謠 부르기

2. 본놀이판

① 작두말놀이-네 사람이 양반으로 꾸민 좌상, 무상을 작두말에 태우고 놀이마당을 돈다.

② 양반춤-째보양반, 고자양반, 벙어리양반

③ 병신춤- 난쟁이, 중풍쟁이, 만삭의 배불뚝이, 꼬부랑할미, 떨떨이, 문둥이, 꼽추, 히줄래기, 봉사, 절름발이 등이 등장하여 양반을 야유하고 쫓아낸다. 군무형태의 춤을 춘다.

④ 범부춤-양반도 흥겨워 양반복을 벗고 춤판에 뛰어들어 군무를 춘다.

---

20) Ibid., p.5

21) 농신제 고사문: 하늘 위 상제님, 천상천하 용왕님,/바람기 순조롭고 멸구장충 없이 하여/금년 농사 잘도 해서/천디착한 어진 백성/걱정일랑 덜어주고 충각신세 면하게 하소//웃논에 용왕님 아래논에 용신님/날짐승도 막아주고 들쥐도 막아주고/회기좀도 막아주고 모개좀도 막아주고 /큰좀도 막아주고 엇다 고시래/충각신세 못면하면 농신이고 좆이고/없다 나는 떡이나 먹을래
배도식(1986) op.cit., p.215

⑤ 오복춤-오복춤은 오행과 오기가 순조롭기를 빌며 오체가 성하고 오곡이 잘 되어 오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는데서 유래[22]

3. 뒷놀이판-놀이꾼과 놀이에 참가한 구경꾼이 함께 어울림

이러한 밀양백중놀이의 연희형태는 전통적인 꼼배기놀이나 머슴날과는 크게 변형된 모습이다. 함께 노는 놀이에서 보여주는 공연형태로 변용된 것이다.

밀양백중놀이가 창출되는 과정을 정리한 추현태의 표[23]를 살펴보면 보면 변용과정을 잘 필 수 있다.

	연도	전승조직	연희내용/명칭	주요활동 및 참가대회
창출이전	1955년 이전	보본계(報本契)	병신춤, 풍물, 탈춤	한량들의 여가오락 계모임
		마을 두레패	꼼배기놀이 머슴날	마을단위 축제
	1960년대	오삼친목계	병신춤, 풍물, 탈춤	오락중심의 계모임
		마을 두레패	꼼배기놀이 머슴날	전승력 위축과 소멸
	1971년	국악협회 밀양지부	밀양 병신굿놀이	3회 경남민속경연대회
	1975~1978	국악협회 밀양지부	밀양 들놀이	7회,10회 경남민속경연대회
창출기	1979년 4월	국악협회 밀양지부	밀양 노상보본 계놀이	11회 경남민속경연대회
	1980년 4월	국악협회 밀양지부	밀양 병신굿놀이	제12회 경남민속경연대회
	1980년10월	밀양민속예술보존협회	밀양백중놀이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창출이후	1980년11월	밀양백중놀이보존협회	밀양백중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

※강조는 발표자

새로운 전통놀이인 밀양백중놀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24] 전래되는 전통의 계승이란 점에서 더욱 신랄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이란 항상 현재의 적합성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과거의 모든 유산을 다 계승할 수는 없다. 현재라는 가치척도는 항상 인습과 전통을 구별하고 있

22) 추현태(2004), op.cit.,pp.15~17

23) Ibid.,. p.25

24) 오복춤의 전통성에 대한 비판 등 강용권(1983) 「집단연희 원형에 관한 고찰」, 『석당논총』 8집,

다. 밀양 백중놀이는 품앗이와 두레가 사리진 현실 속에서 놀이보다는 공연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밀양 백중놀이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동안 맥이 끊겼던 세시풍속 백중놀이를 복원하고 채창조했다는 점이다. 2) 양반춤, 범부춤, 오북춤 등을 통하여 서민기예(庶民技藝)의 예술성을 높였다. 3) 병신춤에서 모든 갈등을 해학(諧謔)으로 해소하려는 우리 문화전통이 잘 드러나고 있다. 4) 민속예술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 [25]

하지만 공연 위주로 짜인 밀양백중놀이는 백중놀이가 가지고 있었던 카니발적인 놀이성과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약화되어 있다.

6. 새로운 백중놀이를 위하여

백중놀이는 한국만의 고유한 세시풍속이었다. 불교와 도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우란분재가 호미씻이와 융합하여 백중놀이로 재탄생한 것이다. 백중놀이 속에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해학(諧謔)으로 계층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사회의 변동과 근대화 담론 속에서 백중놀이는 단절되었다.

1980년대 창출된 밀양백중놀이는 단절된 백중놀이를 복원하고 재계승한 새로운 전통놀이다. 창출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첨가되었고 연희형태로 달라졌지만 백중놀이를 재해석하여 현재에 적합한 서민예술로 승화시켜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연 위주로 짜인 밀양백중놀이는 백중놀이가 가지고 있었던 카니발적인 놀이성과 사회통합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밀양백중놀이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는 다른 지역의 백중놀이 복원과 계승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백중놀이는 복원되고 계승되어야 할 우리의 전통놀이다. 그런데 현재의 적합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 백중놀이의 본질적인 요소를 잃을 수가 있다. 백중놀이는 참여자 전체가 신명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카니발적인 놀이이자 해학을 통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시공간이었다. 이러한 백중놀이의 성격을 계승하면서 현재에 맞는 새로운 백중놀이를 창출하여야 한다.

25) 추현태(2006) op.cit., pp.77~79

<참고문헌>

강병길(2002) 「밀양백중놀이에 관한 연구」,『목원대 자연과학연구 논문집』

강용권(1983) 「집단연희의 원형에 관한 고찰」, 『석당논총』 제7집, 동아대

김경미(1999) 「병신춤의 민중적 미의식」, 부산대 석사논문

김미숙(1997) 「놀이 문화적 측면에서 본 밀양 백중놀이」,『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부산대 부설 체육과학연구소

김상영(2009) 「우란분재의 의미와 실행의 역사」,『불교학연구』

김수남·김미숙(1986) 『호미씻이』, 평민사

김택규(1989) 「영남민속의 복합성」『한국학논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문화재관리국(1972)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남편』, 문화공보부

배도식(1986) 「밀양백중놀이 연구」, 『한국민속학』 19

오출세(2005) 「세시풍속에 미친 불교민속」, 『불교문화연구』, 한국불교문화학회

이보형(1983) 「밀양백중놀이」 무형문화재 전수실태, 『월간문예진흥』

이승수(2007) 「민속 원형의 창출과 제도화」, 『한국민속학』

이화진(2010) 「장자사상의 관점에서 본 밀양백중놀이」,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

장유경(1986) 「밀양백중놀이 중에서 오북춤 연구」,『예술문화』 2집, 계명대예술문화연구소

정병호(1985) 「밀양백중놀이」, 『전통문화』 9월호

정병호·박진주(1980) 「밀양백중놀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6집, 문화공보부

정영남(1988) 「밀양백중놀이의 사회적 기능」, 서울대 석사논문

진철승(1993) 「민속과 불교신앙」, 『승가』 10권, 중앙승가대

추현태(2004) 「밀양백중놀이의 전통창출과 사회문화적 의미」, 안동대 석사논문

최대식·최지년(2001, 「양반에 대한 머슴의 반항극」, 『사회과학연구』

최영란(2000) 「전통놀이에 나타난 공동체성 연구」, 『목원대논문집』

최영란(2002) 「밀양백중놀이의 공동체성」, 『한국체육학회지』

최지연(1999) 「밀양백중놀이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최충환(2001) 「백중놀이의 사회공동체적 기능성에 관한 연구」,『한국 여가 레크레이션 학회지』

발 제 2

살아있는 유산, 지역의 역사문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선철(숙명여대 겸임교수,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

1. 들어가기

최근 국내에서는 지역마다 수많은 축제들이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 주제나 테마도 다양하고 규모, 예산 시기 등 가히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간 많은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보니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높아지고 축제에 참가하는 방문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그 유형도 전문 예술축제에서 지역의 특산물이나 전통문화 활용한 축제, 또는 여가를 위한 관광형 축제까지 다양하고 방문객의 관심과 참여도 복합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의 축제들은 이러한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홍보와 경제 유발효과를 노리는 마케팅적인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자원이나 특색을 드러내려는 노력도 가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고유의 문화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콘텐츠의 활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설사 아무리 수준 높은 전문적 콘텐츠관광성이 없으면 지역 경제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지역적 색이 없을 때 지역에서의 호응과 참여 그리고 여론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따라서 축제의 주제에 맞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운영상의 인력도 지역을 기반으로 전문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국내의 축제가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이다. 전략적인 기획과 세부 사업계획,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에 있어서도 결실이 많다. 이는 축제를 추진하는 조직 내부의 필연적인 욕구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점차 높아져 가는 참가자들의 안목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자연스레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축제가 성공하려 해도 그 과정이나 결과의 측면에서 위험요소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중적인 콘텐츠나 관광형 축제가

아닌 지역의 역사나 전통 또는 민속 축제나 인문학적인 콘텐츠를 소재로 하는 축제들은 분명 그 중요성은 인식하나 실제로 마케팅이나 기획에 있어서 기존 축제들의 성공요인과 문제점들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피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전통과 역사 또는 민속을 주제로 한 축제와 같은 경우 이러한 전략과 기획 그리고 혁신과 변화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속성상 도태되거나 일부만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활성화 방안

전통과 역사를 소제로 한 축제라고 해서 과거의 모든 유산이 다 활용되거나 보존과 복원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 지역에서 대표적인 소재를 강화하여 재현되거나 그 지역의 여건상 필요에 따라 선별할 수 도 있다. 축제 전승의 문제는 '역사성과 현재성' 이라는 양면성이 교차되면서 정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통역사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에서 대단히 현실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어느 축제에서든지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요소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resource)이 무엇인지 조사, 파악하고 발굴하며 효과적으로 보존함으로 향후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가용성을 높인다. 지역의 대표적인 자원을 유형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 역 사 : 향토문화재/역사인물(생가)
- 예 술 : 지역전통예술/문화공간
- 생 활 : 생활양식/전통마을

대부분의 자원들이 곧 다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화 한다는 것은 환경과 미디어 그리고 플랫폼에 따른 창의적인 가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테마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은 전문가와 기획자에 의해 전략적인 가공을 필요로 한다. 또한 콘텐츠는 시장의 반응과 차별화된 경쟁력의 유무에 따라 이른바 무형의 상품(product)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필요하다.

- 지역에 기반을 한 잠재적 자원의 보존과 개발 resource
- 목적과 환경에 맞는 콘텐츠 기획 contents
-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발전 product

지역의 축제가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창의적인 콘텐츠화 하고 본격적인 문화상

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 주 프로그램의(killer contents) 전략적 집중 육성
- 부대행사의 연계성강화와 불필요한 이벤트 배제
- 타깃의 선정과 집중
- 주 이미지 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아트 디렉터의 필요
- 축제 브랜드의 창출

축제는 대표적인 소통의 이벤트이다. 한 지역의 축제가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의 많은 방문객과 후원그룹을 잇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방문객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나 외에 전략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단 구축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와 배려 그리고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이른바 관계관리의 요소가 적용되는 부분이다.

- 대내외 전략적 관계의 파악과 대상선정
-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방안 모색
-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과 관리로 충성도의 상시 강화
- 지역사회(community) 여론 조성
- 미디어(media)를 위한 뉴스 밸류 창출

지역 축제의 가장 필요한 성공 요소는 바로 얼마나 분야별로 전문가를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일정 정도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태생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축제의 향유자가 국제적 수준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라고 볼 때 그 눈높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배타적인 분위기의 지역축제의 실패사례와 과감한 외부로부터의 전문성을 활용할 때의 성공사례는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다.

- 전문성이 필요로 한 분야의 파악
- 전문가 그룹의 확보와 적극적 기여의 동기 부여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존중과 협력관계 구축

3. 발전적 제안

지역의 역사문화축제가 성공하려면 그 지역의 자랑스러운 고유의 역사를 주제로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살아있으며, 외부 방문객에게는 품위 있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 지속적이고 수준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민되어야 한다.

1) 주제의 기능에 대한 인식

축제의 주제는 축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수단이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슷비슷한 축제 속에서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아닌 독창적인 주제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 주제는 독립된 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으나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생활과 그 맥락을 같이 할 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인물이 앞설 것인지, 그의 정신적 유산자체인지, 아니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며 각별히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정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 콘텐츠외에 주민참여의 프로그램은 별로로 평소에 투자되어야 한다.

2) 디자인과 상징물의 강화

축제를 한 번에 떠 올릴 핵심 이미지의 창출과 이것이 응용된 시각전략, 사진기록과 영상,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가의 활용과 지역의 참여가 적절히 조화된 이미지 창출이 필요하며 이는 그 축제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대심과 연상효과를 줄 수 있기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인쇄홍보물과 각종 옥외홍보물, 현장에서의 유도사인 각 행사장의 시설물과 기타 무대와 전시부스 그리고 기념품과 기념상품에 이르기까지 개별 아이템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일관된 톤과 방향으로 축제 고유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많은 축제들이 촌스러움과 싸구려의 이미지를 벗고 개성 있으면서 품위있고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추세이다.

3)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축제발전 장기계획

지속가능성은 모든 분야의 화두이기도 하다. 개발, 보존, 환경, 관리 등 모든 부분의 문제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것인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교류와 대외홍보를 위한 것인지, 경제유발효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하며, 통합적이며 장기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 단계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역 축제가 문화적 측면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거둘수 있는 단계까지 순차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4) 지역 축제전문인력의 육성

축제가 장소로서, 콘텐츠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며 아울러 행정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업체의 대행 시스템은 그 지속성과 역량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므로 여러 단계의 인력의 장기적 육성과 활용은 지역의 몫이다. 공무원, 민간기획자, 주민, 자원봉사자 모두 매개자로서의 역할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문가 교육이나 워크숍 또는 자원봉사자 육성이나 주민인식교육이 축제의 필수적인 콘텐츠로 준비되어야 하며 축제가 벌어지지 않은 시간동안의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역의 문화와 축제의 필요성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이해와 애정을 겸비한 인력의 육성이 이벤트로서의 축제개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MEMO

MEMO

MEMO